

**담당 : 홍보팀 김균섭 사원ㅣ E-mail : media@klpga.org**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2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

**서어진, 최은우, 송가은**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
| 2 | 기 간 | 2025년 7월 31일(목) ~ 8월 3일(일) |
| 3 | 장 소 | 오로라 골프&리조트 [마운틴(OUT) / 레이크(IN)] |
| 4 | 주 최 | 오로라월드(주)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509야드 |
| 8 | 참가인원 | 120명 |
| 9 | 주요  출전선수 | 이예원, 고지우, 노승희, 김민선7, 김민주, 이가영, 박혜준, 박보겸, 유현조  박지영, 한진선, 김시현, 송은아, 정지효, 박민지, 김소이, 성유진, 김수지  김도희(A), 김지영2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  (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  [2라운드] 11시 ~ 17시  [3라운드] 10시 ~ 16시  [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서어진, 2라운드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69-65) \*단독 선두(14시45분 기준)**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134**](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134)

**Q. 오늘 경기 소감은?**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버디 찬스를 많이 잡았고 대부분 성공해서 버디를 많이 기록했다. 기분좋게 마무리했다.

**Q. 코스는?**

전체적으로 전장이 길지 않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 아이언 샷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코스다. 그래서 아이언 샷이 장점인 나와 잘 맞다. 다만, 블라인드 홀이 몇 군데 있어 티샷 공략이 중요하고 그린 경사가 심한 홀들이 많기 때문에 퍼트하기 쉬운 곳에 공을 두는 것이 관건이다.

**Q. 최근 페이스가 상승세인데, 우승에 대한 생각은?**

주변에서 우승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우승이라는 결과보다는 오늘처럼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느낀다. 남은 이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플레이할 생각이다.

**Q. 눈이 충혈된 듯 보이는데, 컨디션은 어떤가?**

최근 촬영이나 행사 일정이 많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조금 무리를 해서 눈이 충혈된 것 같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고 더위에 강한 편이라 컨디션은 좋다.

**Q. 이번 대회 목표는?**

2라운드 오전조까지 선두로 마무리했는데 우승만을 생각하진 않는다. 예전에는 상위권에 있으면 지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페이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예선 탈락을 하더라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다. 순위에 상관없이 자신 있게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 최은우, 2라운드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67-68) \*공동 2위(14시45분 기준)**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235>

**Q. 경기 소감은?**

2주 쉬면서 재정비한 덕분에 새롭게 시즌을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2주 동안 준비를 많이 했고 노력이 경기력을 드러났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다.

**Q.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체력적인 부담은 없었나?**

2주간 쉬어서 오히려 체력이 회복된 느낌이었다. 그 덕분에 힘들지 않았다.

**Q. 코스는?**

생각보다 티샷이 까다로웠다. 블라인드 홀이 많고 그린도 크고 언듈레이션이 있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샷을 많이 쳐서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었다.

**Q. 좋은 성적을 낸 비결은?**

장타 선수는 아니지만, 티샷과 아이언샷의 정확도를 높이려 노력한다. 특히, 아이언샷이 내 장점이라고 생각해 더욱 집중해서 치다 보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더불어 연차가 쌓이면서 코스 공략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겼다. 무리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클럽을 선택해 안전한 플레이를 하고 핀 위치에 따라 가면 안 되는 곳은 확실히 피해서 공략하려고 한다.

**Q. 3,4라운드 계획은?**

샷이나 퍼트보다 더위와 체력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 더우면 집중력이 떨어져 퍼트 실수를 종종 했기 때문에 유의해서 라운드 도중 우산도 활용하며 체력 안배에 신경 쓸 계획이다. 그리고 파5 홀이 짧은 편이라 티샷에 집중하고 퍼트감도 나쁘지 않기에 버디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지금 흐름을 잘 유지해 좋은 결과를 얻겠다.

**◈ 송가은, 2라운드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70-65) \*공동 2위(14시45분 기준)**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8773>

**Q. 경기 소감은?**

티샷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아이언샷이 잘 맞았고 퍼트도 잘 따라줘서 좋은 성적을 냈다. 특히, 오늘 중거리 퍼트 성공률이 높았다. 무엇보다 이렇게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

**Q. 코스는?**

굵직한 경사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린이 더 편해서 나와 잘 맞았던 것 같다.

**Q. 오랜만에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

드라이브 비거리가 부족해 보완하려고 스윙에 변화를 줬는데, 나와 맞지 않았다. 방향성이 흐트러졌다. 아직 완벽히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Q. 현재 정규투어 출전이 보장된 상황이 아닌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나?**

작년에는 엄청 힘들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한 단계 내려가 있으니 마음은 더 편하다. 행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시합에 출전하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작은 것에도 행복하려고 노력한다.

**Q. 이번 대회 목표는?**

정규투어 시드 순위상 대회에 자주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꼭 이 기회를 잡아 우승해서 정규투어 시드권을 확보하겠다.